

“또 오세요” 한마디, 시장의 미래 바꾼다



(下) 상인의의식 변화 절실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자구책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 말 박재관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산에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적극 반영, “전통시장이 과

무등시장 상인 52명 상인대학 졸업 판매 마인드·진열법 등 서비스 전문 친절도 따라 각 상점간 매출 차이 커

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14일 지식경제부는 특허청, 중소기업청, 우정사업본부 등 37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을 골자로 240억원 규모의 은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7~8월에만 한국전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전

남지방우정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등 민·관은 잇따라 전통시장과 지원·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전통시장을 아예 사회화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동시장을 성공 모델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시 남구 무등시장 임승우 상인회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은 과하다고 느

낄 만큼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친절과 서비스 등 이용객을 위한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등시장 상인들은 지난 17일 시장경영진흥원이 주관하는 상인대학을 통해 지난 2개월 간 교육을 받은 52명이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임 회장은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판매 마인드와 상품 진열법, 손님 대하는 방법 등을 배운 상인들은 금세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며 “당장 사례를 들자면 상품 판매 후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던 것을 교육을 받은 후 ‘또 오세요’라고 바꿨더니 손님들이 느끼는 친절도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양동시장 김영식 전무는 “오래된 시장일수록 시장이 좁아지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을 받아 손님과 말이 통하는 상인과 그렇지 않은 상인은 매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상인의의식 변화는 곧 원산지 표시 정착 등 제도 확립부터 나아가 상품 판매에 있어 업종전환을 통해 전통시장의 특징마저 바꿀 수 있는 노력을 말한다. 특히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교육을 통한 의식 혁신은 전통시장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상인대학 책임교수를 맡았던 호남대 임창욱 교수는 “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대 등 시설 현대화가

매출 상승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 하지만 시설 확대가 실제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상인들은 위기의식과 함께 현실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변해야 하는 지 평소 느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예 시가 진두지휘하는 ‘전통시장 종합대책상황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창욱 교수는 “전통시장의 미래 전략은 장기적으로 ‘시장 특성화’에 달려있다”며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데 반해 아직까지 상인들의 의식 혁신 노력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은 물론, 업종전환까지 할 수 있는 상인들의 의식 혁신이 이뤄질 때 시장에 따라 근린생활시장과 문화관광형 시장, 전문시장으로 특성을 살려 탈바꿈하면 등돌렸던 고객들도 시장을 다시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소이 광주일보시민기자·순천대 경제3



하나하나 정성으로 빚었어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바빠 다가는 가운데 영광 한 모시잇 송편 제조 업체에서 아낙네들이 정성스레 송편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첫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6월보다 2만2천명 줄어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2009년 5월 이후 2년2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신규 분양 물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해양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1101만3597명으로 지난 6월(1103만5711명)에 비해 2만2000여명(0.2%)이 줄었다. 그동안 청약에·부금 가입자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줄어든 것은 2009년 5월 출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청약저축과 예·부금의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첫 출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불과 1년5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 통장 가입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올해 2~4월까지 매월 10만~16

만명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 5월에 가입자수 증가폭이 처음으로 1만명 단위(1만1785명)로 급감한 뒤 지난 6월에는 1만1395명만 증가하는데 그쳤고, 급기야 지난달 말 처음으로 2만명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년 전 상품 출시와 동시에 가입했던 207만여 명이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대거 1순위에 편입되면서 2~3순위 가입자들의 인기가 지역 당황 확률이 떨어진 때문이다. 또 최근 집값 안정으로 청약메리트가 감소하면서 2~3순위 가입자를 중심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돼 있고, 공공의 보급자리주택 사업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인기지역의 분양 물량이 감소한 것도 ‘만능통장’ 가입 열풍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지역 벼·고추 재배 면적 감소

판로 불안정 등 영향 전년보다 4.1% 줄어

광주·전남 지역의 벼와 고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호남지역 2011년 벼·고추 작물재배 면적 조사’ 결과 광주·전남의 2011년 논벼 재배면적은 17만8794ha로 전년도의 18만6345ha보다 4.1%(7551ha) 감소했다. 또 광주·전남의 2011년 밭벼 재배 면적은 2735ha로 전년도의 3682ha보다 25.7%(947ha) 줄었다.

논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은 하우스 등 다른 작물 전환이 증가한 데다 농경지 개선 사업으로 휴경면적 증가, 쌀 수입량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밭벼 면적 감소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행정기관의 밭벼생산 감축 사업, 판로 불안정, 수입쌀 대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 광주·전남의 2011년 고추 재배면적은 7381ha로 전년도의 7779ha보다 5.1%(398ha) 감소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도로위 車 10대중 1대는 ‘쏘나타’

몇년째 선호도 1위...아반떼 2위·포터 3위

해가 지날수록 다양한 종류의 신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종은 2년여 전과 비교해 그다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운전자들이 대개 신차보다는 가급적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차를 선호하는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가 최근 발표한 7월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말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1831만559대이며 이중 쏘나타가 171만572대로 약 9.4%의 비율을 차지했다. 도로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차량 10대 중 한대는 쏘나타인 셈이다. 이어 아반떼가 139만3379대로

2위, 포터가 109만9493대로 3위, 그랜저가 88만9449대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그런데 2년 5개월전인 지난 2009년 2월말 기준으로 차량 등록대수 순위는 어떻게 집계됐을까. 결과는 현 시점과 똑같았다.

당시 KAMA 통계에 따르면 등록 차량은 총 1686만여 대에 달했는데 쏘나타는 165만8775대를 기록해 역시 최다 등록 모델로 집계됐다. 2위는 현대차 아반떼(124만9426대), 3위 현대차 포터(101만564대), 4위 현대차 그랜저(76만7456대)로 등록 최다 모델 1위부터 4위까지 현 시점과 비교해서 변한게 없다. /연합뉴스

신토불이 6년근
홍삼의 놀랍고 새로운 대발견 **평화발효홍삼**

속삭임이 선물세트 특별세일 | 단체 주문환영

▶천지용 산수유 30포 35,000원

▶천지용 홍삼진액 골드 30포 45,000원

▶천지용 홍삼진액 골드 30포 60,000원

▶평화 홍삼 진골드 120g 5봉 240,000원

일반 홍삼과 발효 홍삼은 100% 다르다.
일반 홍삼은 콩이고 발효 홍삼은 된장이다.

평화 발효홍삼이란? 평화발효홍삼은 인류의 명약이라고 알려진 고려홍삼을 계대식 가마에서 특수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파평(행취기) 처리하여 완성한 명품으로 일반 홍삼 제품보다 유효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증량되었고 종전 홍삼제품은 체내 흡수율이 30%인 반면 저희가 기술 개발한 평화발효홍삼은 체내에 100% 흡수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감기가 자주 오고 오래가는 분
- 설사와 변비가 잦은 분(경내 미생물 부족)
-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한 분
- 면역력이 약하신 분
-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 피부가 거칠고 부스럼이 잘 나는 분

평화발효홍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당뇨원화 | 신경계 장애 | 피부탄력 노화방지 | 각종 피부질환 개선
세포부활 작용 | 비만체질 개선 | 간기능 개선 | 혈압강하 작용
소화작용 | 항 콜레스테롤 작용 | 항 궤양작용 | 항암 작용 | 해독작용 및 중금속배출

무료 상담전화 062-262-5375
010-6770-4488 · 010-6773-1283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茶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茶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 감동Set

▶ 다담Set

▶ 우전갈로

▶ 감시Set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7007-8 T. 222-2902, 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